



원자력 안전규제 업무를 맡으면서

이 현 규

과학기술처 안전심사관

원

래 인간은 자연을 관리하면서, 자연이 주는 혜택을 누리며 살도록 되어 있었다.

현대의 과학 기술 문명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공해 줌으로써,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 왔음을 틀림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과학 기술은 부지 불식간에 자원과 에너지의 남용이나 심각한 환경 오염을 초래하게 함으로써, 인간과 자연 사이의 갈등을 증폭시켜 왔는데, 이를 우리는 과학 기술의 역기능이라고 부른다.

세기말에 접어들면서 이 역기능으로 인하여 소위 '과학 기술 문명의 일대 위기'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다.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과 '환경 보전(Environmental Conservation)' 문제가 국제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20세기 과학 기술을 대표적으로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원자력의 경우, 원자력 기술이 가져다 준 여러 가지 유익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일반인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원자력 이용에 수반되는 위험성은 개인이나 소수 집단 내에서 뿐만 아니라 타지역이나 타국가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원자력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이 전개되어 오고 있다.

지난 4월 3일부터 양일간에 걸쳐 개최된 제12회 한국원산/원자력학회 연차대회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활발히 논의되었다.

과연 원자력이 환경을 보전하면서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인지에 대해 각국 참가자들의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

그 공통된 결론은, 현재까지의 과학 기술 수준으로 볼 때 인류가 다음 세기까지 원자력 외에 화석 연료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에너지를 확보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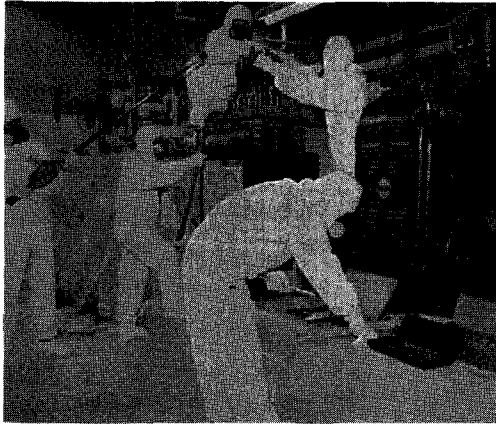
화석 연료는 그 매장 한계 등 자원의 고갈에 대비해야 하고, 또한 우리 미래 사회의 대전제인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 보전 측면에서 우수한 에너지원이라 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부로서도 원자력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는 고민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자력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관·산·학·연이 원자력 이용 확대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이해시키고 이를 원활하게 수행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원자력 이용의 안전성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해 동일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한 한 규제 당국과 원자력 산업계간에 이견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독립성·공개성·명확성·효율성·신뢰성 등



“

앞으로 정부는 그 동안의 경험을
거울 삼아 규제 철학을 가진 규제 기관,
국제 사회에 우리의 견해를 자신있게
내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규제 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5대 원칙을 포함하는 「원자력 안전 정책 성명」을 천명하고 이를 추진해 오는 이유도 바로 원자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확산시키고 국민들에 대한 신뢰 기반을 확보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필자는 새로이 원자력 안전 규제 업무를 맡으며, 앞으로 우리 나라 원자력 안전 규제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싶다.

그 동안 국내 경제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 시설을 외국으로부터 도입·설치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원자력 안전 규제 방식도 외국의 경험이나 기준을 모방·개량하는 데 주력해 온 것이 사실이다.

물론 산업계 및 연구계·학계의 공동 노력으로 우리 기술로 표준 원전을 설계·건설할 정도로 기술의 발전을 가져온 것은 자부심을 가질 만 하다.

그리고 정부가 원자력 안전 규제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설립하고, 규제 기술 축적과 관련 전문가의 양성·확보에 주력해 온 노력에 대해서도 결코 과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그 동안의 경험을 거울 삼아 규제 철학을 가진 규제 기관, 국제 사회에 우리의 견해를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규제 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도 종사자들에 대해 철저한 안전 의식과 안전 문화를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방식을 도입하고, 원자력 시설에 있어서의 사고 방지와 만일의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국내외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러한 정부와 사업자의 진솔한 노력과 정성이 원자력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에 진정한 의미의 이해와 일치가 가능해질 것이며, 그리고 Public Acceptance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원자력의 이용 확대가 갈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활력소가 되는 계기가 철저한 안전성 확보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칼럼 원자력안전문화」의 필자가 바뀝니다. 4월부터 신임 안전심사관인 이현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 동안 이 난을 맡아주신 이승구님(현 과학기술처 원자력정책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